

**날짜:** 5786 년, 8 월 20 일 (2025 년 11 월 11 일)

**토라 문:** 리브카의 생애

**주제:** 완전한 숙달을 달성하려면

창세기 24 장 2 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제 네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에 놓으라.’” 미드라시는 이 구절 중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자”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주해적(註解的) 관점에서 이 표현은 엘리에제르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악한 충동(예츠하라)을 완전히 제어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미드라시는 엘리에제르의 도덕적 강인함을 인정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브 이스라엘 살란터는 악한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예츠하라의 유혹과 욕망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 충동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분명히 놀라운 수준의 자기 통제를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여전히 악한 충동의 교묘하고 기만적인 제안이 유효한 선택지로 떠오르기 때문에, 때때로 그 싸움에서 패배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격을 연마하고 자기 수양에 힘써, 악한 충동 자체를 완전히 복속시킨 사람입니다. 이 수준에 이른 자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지향하게 되며, 예츠하라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인물은 올바른 길을 자동적으로 따르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완전한 도덕적·영적 경지에 도달한 인물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오직 이 포피(包皮) 외에는 흠이 없다. 그것을 제거하면 흠이 없어지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엘리에제르는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이와 같은 완전성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예츠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나, 여전히 그 기만과 영향력에는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드라시는 엘리에제르를 “손에 속이는 저울을 지닌 자”로 묘사하고, 이는 그가 자기 딸이 이사크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를 내심 저울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내적 타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2 장 8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에 속이는 저울을 지닌 상인 (מִנְיָן, 크나안)이라, 사랑하는 자를 속이려 함이로다.” 여기서 “상인 (크나안)”이라는 표현은 엘리에제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창세기 24 장 2 절에서 “종”으로 묘사되며, 이는 곧 “크나안”이라는 명칭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크나안”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가나안”을 뜻하는 동시에, 상징적으로 ‘노예’의 전형을 의미합니다. 엘리에제르가 “손에 속이는 저울”을 지녔다고 묘사된 이유는, 그가 자기 딸이 이사크와 결혼할 수 있을지를 내적으로 저울질한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deliberation (심중한 고려)은 “사랑받는 자를 속이려는” 시도로 간주되며, 여기서 “사랑받는 자”는 이사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의 사랑받는 자”로 불립니다. 이는 그가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 천사들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을 잡고 아들을 치려고 했을 때, 시위하는 천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33 장 7 절의 “보라, 에렐람 (מְלָאכִים)이 밖에서 외치도다”라는 구절에 반영되어 있다.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서 “에렐람”이 “말라아힘 (מְלָאכִים)”—즉, “천사들” 또는 “사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엘리에제르가 “혹시 그 여인이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사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암묵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혹시”에 해당하는 “אולי (올라이)”는, 그 결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드라시는 따라서 엘리에제르의 질문을, 겉보기와는 달리 개인적 희망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이는 그가 자기 딸을 이삭과 혼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단호히 응답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이니 저주받은 자이며 (창 9:25), 내 아들은 축복받은 자이니, 저주받은 자는 축복받은 자와 결합할 수 없다.”

샬롬